

하나님의 아들됨의 秘義



Guenther Bornkamm

우리가 많은 성탄의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마틴 루터」의 「하늘에서 天軍이 온다」(Vom Himmel kam der Engel Schar)는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으며 불리워지고 있지도 않다. 이 노래 마지막 절에서 「루터」는 羊 치는 牧者들에게 대한 천사의 말을 끌어다가 하나님 아들의 완성된 秘義, 즉 성탄의 使信을 밝히고 있다.

너이는 마침내 바른 길 찾았네

이제 너이는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네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리

기쁨으로 전드리, 언제나 그 언제나

「너이가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다」는 성경을 조금만 아는 이라면 이 구절이 어디서 인용되었는지를 알 것이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온 것으로서 바울이 아테스의 아레오바고에 서한 저 유명한 설교로부터 인용한 것이다. 이 설교는 그

시대의 그리스도 詩人과 哲人들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바울」은 이미 後期 회람의 이방종교에 있는 말을 轉用하여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지 않다」 「우리는 그를 현언어 삼며 起動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한 표현은 이를 그리스도의 詩句에서는 찾아볼 수 있다. 바울은 이것을 인용하여 「나의 시인 중에 누가 말한 것 같이 우리는 그의 所生이라고 하였다.

이 말은 主前 三세기의 어느 회람 詩人의 敎訓 詩에 의거한 것이다. 즉 이것은 당시에 많이 읽혀진 Aratos의 詩에서 나온 말이다.

이 詩의 序頭에서 이 시인은 말하기를 「사람은 Zeus와 더불어 모든 것을 시작한다. 커리와 지장, 바다와 항구에 는 Zeus로 충만하다. 그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그의 所生이기 때문에. 그는 그의 인자와 표

적으로 사람에게 나타나고, 삶에 무엇이 필요할 때 그 백성을 기억하고, 그들의 실제 行動을 도와 준다. 그는 발을 갈 때와 씨를 뿌려야 할 때를 가르친다. 그는 인간을 위해 天體의 운행에 좇아 季節을 배정하였다.」 시인은 이 神을 향하여 장엄한 찬양을 드리는 것이다. 「영광이 있을 뿐저, 영광의 아버지여! Zeus! 인간의 祖上이여!」.

이 詩에 관련해서 사도가 인용한 「우리는 그의 所生이라」는 구절을, 루터는 그의 성탄 노래에 차넣었다. 그러나 루터는 다음 낱말을 첨부하므로써 성탄의 意義를 부여하였다. 즉 「너이가 이제(ann)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다(woden)가 그것이다. 이 두 낱말은 사실상 그의 노래의 核心을 이루고 있다. 이 두 낱말이 가미됨으로써 이 그리스詩人의 말이 그리스도교적인 것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이상 더 生來의인 인간의 존재나 본질에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奇蹟的 행위를 거쳐서 해야될 수 없는 사건으로 배열어진 品位와 위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됨」(Gotteskindschaft)이란 말에서 새로운 액센트와 의미를 인식한 사람은 인간적인 생각이나 가르침의 범위를 넘어선 그리스도교 倣信의 특수성과 그 本義를 本質의으로 파악하였다 하겠다.

다음에서 우리가 밝혀야 할 사상은 一回性과 特殊性인데 이것을 概括으로써 성탄의 倣信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어 보려고 한다. 이에 앞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됨」과 인

간의 「하나님 아들됨」의 思想이 절대로 그리스도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예수가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시작한 것은 결코 아니다. 神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변화는 그리스도 이전에도, 또는 그리스도교 이외의 다른 宗教에서도 이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으며, 어대서 보더라도 먼저 古代 또는 後期의 회랍에서 이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한 관념이 뚜렷히 나타난 것은 회랍 神話에서이다. Zeus는 諸神의 神으로서 父性的인 힘과 권위를 지닌 자, 은 우주의 아버지, 그리고 특히 인간의 아버지이다. 그는 生命의 공급자며, 모든 것의 創造者, 보호자 및 지배자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同姓의 자녀인 인간은 그에게 계속적인 간구와 힘찬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는 父性的인 치혜와 正義로써 모든 것을 다스린다. 이러한 차이가 여러 갈래로 갈라질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 안에서 인간의 교만한 의식, 즉 인간은 神性的이고 神의 同姓者라는 意識이 뿌리박혔고 또한 信者의 神계가 가까이 서 있다는 確信이 생겼다. 「神은 네 곁에 있다. 너와 머무러 그 가 있다. 또한 네 안에 도」 이는 Sanaa의 편지의 한 구절인 것이다. 또한 주후 一세기의 스토익派인 Epiktet의 말에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다. 「神을 창조자로서 그리고 보호자로서 가지므로 우리는 고난과 공포로부터 해방될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그는 던지고 있다. 이 인식은 모든 인간의 神的尊貴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人生에 同參하고 있

는 이웃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들의 口傳 안에서 이러한 회랍적인 觀念과 그리스도 교적인 遺産이 한데 뭉쳐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성서 안에 용납할 수 있는 것으로, 또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本義와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 두 사이에는 깊은 深淵이 가로놓여 있다. 다음의 견언은 우리에게 언제나 適用된다. 「비록 두말이 같다고 해도 같은 것이 아니다.」 사실에 있어서 하나님은 아들됨의 神祕性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使信은 本質上 그 어느 것과도 다른 것이다.

이미 구약에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과 그의子女들에게 대해서 언급한 것은 회랍적인 경우와는 아주 다르다. 거기에는 生來의 系統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가 또는 神人사이의 본질적 同性을 말하는 일은 없다. 특수한 의미에서, 가령 영웅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아버지로서 받든다는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理性의인 존재로서 인간이 모든 것에 대해서 통찰할 理性을 가졌기 때문에 神과 近緣이라고 생각한다는가는 일은 없다. 오히려 구약에서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과 그의 첫 아들로서의 이스라엘 또는 하나님 아들로서의 민족의 王에 대하여 言及할 때에 選定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 특수 관계를 말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이 그들의 위로이며 따라서

신자는, 「주여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구주! 이것은 太初부터의 당신의 이름이로소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다. 이러한 위로는 어느 한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 민족에게 미치며 따라서 개인에게는 단지 이 민족의 一員이라는 限에서만 관련되는 것이다. 다음의 사실에는 큰 의미가 들어있다. 즉 後期 유대期——대체로 예수 시대——에는 이러한 自負와 確信이 파파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시대에 와서 「이제는 전 민족이 아니고 민족 안의 경건한 자들만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確實性이 適用되며, 그들만이 이러한 영광을 기대할 수 있다. 경건한 자, 즉 義人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의식이 뚜렷해졌다. 그러나 누가 감히 사실상 이것을 自認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아버지됨과 인간이 神의 자녀됨의 확신이 근본적으로 흔들렸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주세념다는 의미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유대 지혜서에는 「주세념게 그——義人——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어디 보자, 그것이 정말 참인가를! 그의 終末이 어떤가를! 그의 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은 그를 돌볼 것이며 그를 그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실 타이니!」라고 써워있다. 이와 비슷한 嘲聲은 또한 苦難史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는 무리들의 毒舌에서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됨! 이것은 당시는 단지 한 번 알뜰애, 모든 시간의 저편에,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었음을 뿐이요 現在의인 確實性은 가지고 있지 않는 일종의 회망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미루어 볼 때 하나님의 아버지됨과 하나님의 자녀됨에 관한 예수의 말씀은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의 말씀 가운데에는 새로운 神觀 혹은 새로운 神概念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현실, 하나의 사건이 선포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이미 選定된 이스라엘 민족에 局限된 것도, 또는 義人이나 경건한 이들에게 限定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지자, 악한자, 義人 및 不義한 자의 아버지됨을 선포하셨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 착한 아들에게 대해서만이 아니요 두 아들에게 똑 같이, 즉 自由的 自由의 渴求로 말미암아 멀리 떠나가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한 아들에게 대해서도 그런 것이다. 그 아버지는, 사람의 눈으로는 그 이상 아들의 가치를 찾아볼 수 없으리만큼 비참하게 달라고 짓밟혀 돌아오는 아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이시다. 오히려 아버지는 그를 끌어 안고 입맞추며 기쁨의 잔치를 베풀었다. 또한 그는 자기와 함께 하였던 딸아들을 밀어 제친 것도 아니고, 간절한 사랑으로 "이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

거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권고하셨던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의 비유를, 후기 회람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며 인간은 그의 자녀라고 강조한 것과 同一視할 수가 있을까? 그럴 수는 없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하나의 行爲,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되어진 하나의 事件이 보도된 것이며 결코 일반적인 인간의 本質을 해명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먼 나라에서流浪하던 탕자나 집에 머물러 있었던 딸아들이나 자기와 血緣的인 관계를 가졌다는 것만으로 그들을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렇다할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生來의 子女權은 아버지를 떠나갔던 탕자에게 보다는 딸아들에게——그는 육신으로는 항상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으나 정신적으로는, 自己滿足과 喜悅의 喪失로 인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굳은 맘을 가졌었다는 의미에서 탕자보다도 더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있었던 것이다——더 관련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정신적으로 본다면 탕자도 딸아들도 다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이며, 그들이 그러한 상태에 처해 있는 동안에는 둘 다 잃어버렸었다고 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단지 그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에 의하여 아들됨을 용납받을 때, 그것을 기뻐 받아들이는 때, 비로소 다시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의 복음에 있어서의 아들되는 기적이요 또한 신비한 啓示이다. 이것은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해내거나 꾸며

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말한 것을 더 밝히려야 한다. 우리는 마치 예수는 이미 있던 神觀 그대로를 계승하고 단 지 거기에 새로운 애센트를 가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결이와 넓이를 준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거기에 그의 복음의 特殊性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이런 정도의 첫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 달았을까? 그의 복음의 특수성은——즉 그의 風貌와 그의 生涯는——그가 가르침과 행동에 있어서 類例 없는 促求와 놀라운 권세로 임한 데 있다. 즉 「지금」 이루어졌다. 「지금」 그의 말씀이 올린 바로 지금, 「지금」 그가 몸소 反神的 惡의 세력과 맞선 지금! 사탄의 권세에 終末을 지으므로 그에게서 모든 것을 도루뎠는 그가 여기 계시다. 「너이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너이가 듣는 것을 듣는 귀는 복이 있다. 나로 인해 실족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러한 것은 예수의 모든 말씀에서 원차게 올린다. 그의 말씀은 단지 하늘에 계신, 사랑하며 용서하시는, 永遠한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요, 지금 그 자신에 있어서, 그 말에 있어서, 그의 행위에 있어서, 그의 전 생애에 있어서의 하나님님의 사랑의 一大事에 대해서 말씀한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유대교에서 먼 장래의 위로와 소망으로서 말하였다. 그러나 지금 그가 세리와 죄

인들과 앉은 자리에서 「소자야! 네 죄는 용서함을 받았 다」 하신 대로 「지금」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은 그 대적에게 분노를 일으켰다. 「어떻게 저렇게 말하는가, 참말하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감히 죄인을 용서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바로 이 事實이 창기와 세리를 하나님의 기쁨의 반열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 초대교회의 신앙은 응답하고 있다. 수 많은 초대교회의 기도와 고백과 그리고 여러 가지 표현에 있어서 이러한 신앙을 당초부터 希臘宗教的, 哲學的 표현과 철저히 구별하고 있다. 즉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生來的 本質의 繼承이란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기적, 신비로서의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에 있어서 이루어진 자녀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로써 더 하나님의 子女됨에 대한 신앙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告白을 내포하는 것이다. 「마을도」 잘라 더 아서에서 성탄의 말씀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배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인에게서 나게 하시고 올림 아래 나게 하심은... 우리로 자녀되게 하심이라」 우리의 生來性은 無다. 또한 人間의 尊貴性에 대한 아무런 보나 높은 哲學的 사상도 있을 수 없으며, 人間性의 喪失을 다시 찾아 줄 아무런 깊은 神的 神秘經驗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한 아들에 의해서 우리 전체가 子女

되는 一大事가 實現化되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우리를 그의 兄弟라고 부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所生들이 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의 電流가 우리에게 통하므로 우리는 우리의 生來性을 저항할 永遠한 低抗力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의 生來性은 파괴되었다.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惡의 세력은 敗北하였다. 그것은 말구유 위의 아기 탄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있어서 중말을 통하여였다. 우리는 그것을 불 눈과 마음을 열어야 한다. 「보라 어떠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子女라 불리움이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子女됨의 특권을 가지고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同姓이라는 저 옛 회람 사상을 맞서서 처부시며 장비를 칠 것인가? 만일 그리스도교 신앙 자체가 또 다시 한 경진한 자의 特權처럼 생각한다면 재빨리 또 다시 한 배의 유대의 생각과 같이 신자와 不信者, 그리스도인과 非그리스도인 사이에 세울 담쌓기에 열중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즉시로 그가 依據하고 있는 말씀을 正面으로 부정하여 예수의 복음과 그의 보내심을 無로 물리게 하는 것이다. 사실은 신약의 證言에 의하면 예수의 보내심이 바로 여기에, 즉 우리를 갈라놓은 장벽을 부서버리고 우리의 모든 특권——그것이 유대적이건, 그리스도교적이건, 우리들이 協約한 표준이건, 도덕이

전——에 끝을 맺자는데 그 靈義가 있는 것이다. 성탄의 천사는 「보라! 내가 너에게 큰 기쁜 소식을 宣布하노니 모든 백성에게 미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우리의 됴됨, 즉 우리의 生來의 神性에 言及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한 분, 장로에 싸여서 말구유 위에 누운 이에 대해서 말하였다. 그가 至尊者의 아들이라 불리워져야 한다. 그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세계는 아버지의 침으로서 솟구쳐 모든 자녀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다.

이로써 우리는 왜 「오늘날 너의 중에 한 아기가 나셨다」 한 천사의 使僮과 성탄 노래가 退色한 것이 오늘날도 선포되고 찬양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네 그리스도인들아 다 함께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날 그의 하늘나라가 열리고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다」 오늘날 그는 다시 아름다운 樂園으로 가는 문들 여시다. 거기에 거기에 천군이 서 있어 영광과 찬송을 노래하다 「하나님과 사람이 오늘 하나되다」. 이 「오늘」, 그것은 분명한 역사에 속한 날이다. 어떤 無時間的 神話에서 산다는 것이 아니다. 이 오늘은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이 밤의 날들을 셀하는 기점이다. 그러나 또한 이 오늘은 우리들의 다 른 날 같이 과거의 흐름 속에 침몰되므로 이제가 되어 버리는 오늘이 아니다. 永遠 안에서 선정된, 하나님의 永遠이 우리들의 흐르는 時間 속에 突入하므로 우리의 모든 날이 永遠의 빛 가운데 서는 것이다.

「저 영원의 빛이 여기 채우고 들어와 세상은 새 빛으로
충만하다」.

하나님의 子女됨! 이것은 信仰者들에게 무한히 많은 의
미를 포함한다. 이 뜻은 우리가 한 새 삶에로 부름을 받았
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여 實現化하시는
새 삶을 받았다는 確實性이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
면 그는 한 새로 지음 받은 자라 남은 것은 지나가고 보
라! 모든 것이 새롭도다」고 바울은 말한다. 하나님의 자
녀됨! 이 뜻은 이 이상 더 초조와 근심에, 수고와 열매에
자기를 상실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아
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공중 나는 새를 보
라, 심으지도 않고 전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가 아신다, 무엇이 너에게 필요할가를. 이런 신
앙은 시련과 고난의 때일수록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다.
만일 신앙이라는 것이 태평한 때에만 有効한 것이라면 무슨 의
미가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됨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헤
아릴 수 없는 섭리를 순종과 信賴 안에서 받아들이는 일이
다. 히브리서 기자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
고 그가 용납하시는 子女마다 채찍질하신다」. 「만일 너
가 채찍을 받으면 너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한 것이
다. 왜냐하면 어디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는

나?」라고 기록되어 있다. 주의할 것은 이것은 삶의 모든
悲運과 苦痛은 그 배후에 어떤 意圖가 따르리라는 일반적
인 고난의 의미의 한 이론, 한 삶의 處方이 아닌 것이다.
저지나치게 영리하려는 生의 哲學이 우리 안에 잠들어진
모든 희미를 다 설명하려고 애쓰므로 써 얼마나 많은 不幸
과 不信을 가져왔는가? 아니다. 이 말들은 저들, 즉 그리
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秘
密을 바로 파악한 이에게만 効用된다. 그것에 대해서 솔직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을, 그의 정제중에서 아
버지가 그 아들에게 있음을 같이, 더 가까이 계시다고 믿을
수 없겠는가? 왜 하나님의 子女의 길이, 그리스도의 兄弟
로서 삶이, 또한 고난과 죽음에 처한 우리들을 이끌을 수
없단 말인가?

그러나 우리는, 고난 중에 있는 아이들이 그들의 아버지
께 구하듯이, 구하고 부를 자녀의 권한을 받아가지고 있
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
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자녀됨!
우리의 不平, 不滿을 성급하게 토하는 말을 다물게 하고
우리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말해진 입을 기도하도록 여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자녀됨은 은사와 더불어, 신약의 복음에 의
하면 우리에게 약속된 無比의 高貴와 더불어, 한 至高의

의무를 주었다. 그것은 결코 사람의 神性을 믿는 사상에 대포되어 있는 것보다 가련운 것이 아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결 자리가 주어 진다는 것보다 더 높은 지위가 무엇이겠는가? 또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빛 가운데서 다른 兄弟를 인식하고, 인정한다는 것보다 더 무거운 義務가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어느 때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마를리어 올리는 것이다. 이런 마당에 그가 우리에게 마르 여기 내세운 형제에게 눈을 뜰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秘密을 생각함으로써 그리스도교 신앙을 고백하려고 하였다. 우리가 바로 이해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비로서 처음으로 우리가 해아릴 수 없는 神祕함에 이르렀다. 그러나 또한 이것은 啓示된 신바로서, 「파라 생각하고」(Nachzudenken)「파라 살 수 있는」(Nachzuleben)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세 것이 아니라 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성탄절에 들리는 성 使信이나 교회에서 드리는 祝祭도 우리에게서 단순한 것으로서 새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낡은 것은 새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직접 선포되는 새 것이다. 우리들은 비록 모든 것이 발전하고 現代化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낡은 우리들을, 흐르는 시대 또는 덧없는 미래의 환상 속에 적어가는 우리들을——죽음의 함정으로부터 불러 일으키려

는 새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또 다시 크나큰 驚異스러운 것을 배운다. 마티아스 클라우더우스(Matthias Claudius)가 그의 소박하고 아름다운 성탄 노래에서 표현한 대로,

우리는 절망과 衰殘 속에서
먼 이방에 학대받아 왔읍니다

죽음의 죄사슬에 휘감긴채

이 때 당신이 아버지 집으로 영접하고자

이 고뇌 속에 우리를 찾아왔읍니다

우리는 하잘 것 없건만, 우리는 하잘 것 없건만

이러한 커다란 驚異 속에서 험한 確信이 눈을 떴다. 마

하(Bach)의 성탄 오라토리오의 마지막 코러스에 또 다시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됨의 神祕가 표현되어 있다.

이제 너의 원수는 잡혔다

너의 못 원수들을

그리스도는 다 쳐부시었다

너이를 대항하면 모든 것은

죽음, 악마, 죄, 지옥,

이 모든 것은 쇠잔해졌다

(이하는 오라토리오에 없음)

하나님 곁에 너의 있을 곳이 있다.

너 神의 所生들을 위한。(安 炳 茂 譯)

(筆者: 하이델베르크大學의 神學部長兼 新約神學 教授)